

광주·전남 지자체 '조기 계양 거부' 동참

각 구청·기초단체 상급기관 광역시·도 뜻 따라

광주·전남경찰청·일선 경찰서 조기 계양 결정

'5·18 학살 책임자'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에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분향소 설치와 조기 계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관공서는 지역 정서를 고려해 광역시·도의 뜻에 동참할 반면, 다른 공공기관은 상급기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눈치'껏 조기를 계양하는 등 다양한 대응을 보였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 결정으로 이날부터 조기를 계양해야 하지만, 태극기를 평소처럼 게양했다.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고인에 대한 예우와 별개로 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희생에 대한 책임과 진정한 사죄, 미완의 진실에 유감 등

을 표하기 위해 조기를 게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역시·도가 조기를 내걸지 않음에 따라 광주의 각 구청과 전남 시·군 등 기초단체도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와 함께 경찰, 소방, 법원·검찰청 등 다른 공공기관도 대부분 이날 오전 조기를 게양을 하지 않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각 일선 경찰서는 이날 오전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다가 오전 10시30분엔야 일제히 조기를 다시 걸었다.

각 일선 소방서도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광주 고등·지방검찰청, 광주 고등

·지방법원도 정상적으로 태극기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은 "본청 지침을 기다리느라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으나 국가장의 경우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기 계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소방본부 측은 "광주시가 조기 계양을 거부함에 따라 소속 광주시 소방본부도 조기를 게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법원행정처 문의 결과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서 아직 지침을 내지 않은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조기 계양을 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했다. /오승지기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참여 열기 후끈

전국 각지서 1천800여점 접수

내달 5일 대상 등 심사결과 발표

제13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에 1천800여점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전국 사진동호인들의 뜨거운 관심은 여전했다.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와 (사)한국사진작가협회는 "제13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작품 접수 마감 결과, 일반부 1천700여점, 학생부 100여점 등 총 1천800여점이 출품됐다"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는 출품작을 대상으로 내달 3일 오전 광주 국제교류센터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 발표는 내달 5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www.pask.net)와 본보 홈페이지(www.kjdaily.com), 지상(紙上)으로도 공개된다.

일반 공모 부문은 ▲대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상·상금 200만원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장상·상금 100만원 ▲특선(입선 10% 이내) 광주매일신문 사장상 ▲입선(출품 수의 20% 이내)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장상 등이 주어진다.

특별(학생) 부문은 ▲대상(2점) 광주시 교육감상·전남도교육감상·장학금 각 30만원 ▲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상·장학금 20만원 ▲특선(5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상·장학금 10만원 ▲



사진대전 출품작 분류 전국 사진동호인들의 관심속에 치러지는 '제13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접수 마감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해 사진대전 운영위원 등 관계자들이 출품작을 정리하고 있다. /김영근기자

입선(50점 내외)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장상 등이 주어진다. 초대작가상 수상자에게는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강춘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진대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8일 광주 남

구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수상자 전시는 진행되지 않는다. /최명진기자

'코로나 장기화' 광주·전남 혈액 수급 난항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들이 급감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이 혈액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전남 지역 혈액 보유량은 1.9일분에 불과

했다. 광주전남지역 혈액형별 보유 현황은 ▲O형 0.9일분 ▲AB형 1.4일분 ▲A형 2.2일분 ▲B형 2.5일분으로 전국 ▲O형 2.6일분 ▲AB형 3.0일분 ▲A형 3.0일분 ▲B형 3.3일분에 한

참 모자랐다. 이는 적정 수준인 5일분에 크게 못 미치는 '경계' 단계로 경보단계는 ▲관심(5일분 미만) ▲주의(3일분 미만) ▲경계(2일분 미만) ▲심각(1일분 미만)으로 구분된다. /한재영기자

오늘의 날씨 ▶예보 지역 날씨 최저/최고기온

해돋이 06:51 해질 17:41
달돋음 --- 달짐 14:05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80 (마스크 챙기세요)
- 빨래 60 (아외건조 좋아요)
- 세차 60 (세차하기 좋은날)
- 운동 90 (준비운동은 충분히)

지역	강수확률(%)	지역	만조	간조
광주	0-0	목포	07:01	00:32
목포	0-0		20:05	12:11
순천	0-0		01:27	08:10
여수	0-0	여수	15:33	22:53

서해 남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북동-동/0.5-0.5m
 면바다 북동-동/0.5-1.5m
오후 앞바다 북동-동/0.5-0.5m
 면바다 북동-동/0.5-1.5m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북동-동/0.5-1.0m
 면바다 북동-동/1.0-2.0m
오후 앞바다 북동-동/0.5-1.0m
 면바다 북동-동/1.0-2.0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10월 30/토	☁ (10/20)	☁ (11/17)	☁ (10/19)	☁ (9/19)	☁ (9/18)	☁ (15/21)
31/일	☁ (10/21)	☁ (10/19)	☁ (11/20)	☁ (8/20)	☁ (9/21)	☁ (14/21)
11월 1/월	☁ (10/19)	☁ (10/17)	☁ (11/18)	☁ (9/18)	☁ (10/19)	☁ (14/20)

▶날씨안내 : 국민일보131

인공지능 기술개발 산학협력 나선다

조선대 AI융합연구원·인공지능산학협력회 교류회

조선대학교 AI융합연구원과 인공지능산학협력회는 28일 오후 조선대학교 IT융합대학에서 대학교수의 연구분야와 기업의 주력개발분야 소개로 인공지능산학기술교류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비즈니스생태계 조성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산과 학이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향후 산학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중심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까지 100개가 넘는 AI관련회사가 광주에 이전하고 있다.

김판구 조선대 AI융합연구원장은 "최근 산업계의 어려움중에 하나가 구인난인데, 조선대학교에서는 과기부지원 SW중심대학사업으로 양성된 학생들이 이제 4학년이 돼 우수인재가 많이 확보돼 있다"며 "11월26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IT잡(Job)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다"고 구직난을 겪고 있는 IT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최현택 인공지능산학협력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교류회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산업 전주기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과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에 교수연구진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임재만기자

광주 직업계고 안전교육·조치 '적합'

광주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지난 12-22일 실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광주 관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인 모든 선도기업, 참여기업, 연

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장실습 기업 및 학생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 '안전교육 실시' 관련 모두 적합, '시설 및 장비 관련 안전보건조치' 관련 모두 적합, '코로나19 방역 대책 마련' 관련 적합 등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재만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진짜 맛과 멋이 있는 진도조금시장

● 장이 서는 날 ●
2, 7, 12, 17, 22, 27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문의 : 062)650-2099